‘15년 미궁’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광주지검, 합동수사 끝에 복역 중인 30대 재판 넘겨
교도소 수용실 압수수색하고 동료 재소자 전수조사
범행 당일 찍은 사진 확보…법정서 진실 밝혀질지 관심

검찰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을 지목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15년만에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지목된 범인은 현재 강도살인죄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모(39)씨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이 사건의 피고인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날은 숨진 A(당시 17·고2)양의 32번째 생일이었다.

사건은 1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양은 2001년 2월4일 오후 3시께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였지만 목이 졸리고 몸 속에서 남성의 체액이 나오는 등 강간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A양 주변 인물 200여명의 DNA를 채취해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12년이 지나며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은 2012년 8월 새국면을 맞았다. 대검찰청이 “A양의 몸속에서 채취된 체액과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경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2003년 광주시 동구에서 발생한 전당포 주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씨의 DNA 채취는 2010년 일명 ‘DNA법’이 시행되면서 이뤄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년여간 수사를 하고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 10월 김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체내 정액 검출 가능 기간이 3~4일인데, 김씨가 A양 사망 3~4일 전에 A양과 성관계를 했다고 발뺌해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액 검출 가능 기간은 되레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단서가 됐다. 검·경 합동수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A양의 주검에서 정액과 A양의 혈흔을 함께 채취한 사실과 누군가 A양이 숨질 때까지 물속에서 목을 조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에게 성폭행과 사망시점 간 근접점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양을 성폭행한 사람이 살해한 것이 확실시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은 또 김씨의 행동반응 등을 살펴보기 위해 수감 중인 교도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고, 동료 재소자 350여명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씨가 교도소 개인함에 보관 중인 소지품에서 김씨가 범행 당일 찍은 사진을 다수 확보했다. 김씨가 범행 당일 행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일 찍은 사진을 그대로 보관 중인 것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범행 장소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건발생 무렵 범행 장소를 수차례 드라이브를 해 잘 알고 있다는 수감자 진술도 확보했다.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기소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영빈 강력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그 결과 김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확신에 이르러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2000년 이후 주요 장기 미제 살인 사건

발생시기·장소		사건 개요
◆광주		
’01.9.4	서구 내방동	30대 임신부, 흉기로 11차례 찔려 사망
’01.9.6	북구 오치동	40대 이용원 여주인, 흉기로 6차례 찔려 사망
’03.3.25	남구 방림동	60대 여성, 얼굴 등 수차례 폭행 당해 숨진 채 발견
’04.1.21	북구 중흥동	60대 건물주, 둔기로 머리 맞고 사망
’04.9.14	북구 용봉동	20대 여대생, 테이프로 얼굴 감긴 채 폭행 사망
’05.5.15	광산구 하산동	40대 주유소 관리소장, 둔기로 폭행당해 사망
’06.11.19	남구 서동	40대 노숙인, 흉기로 8차례 찔려 사망
’07.4.17	남구 사동	40대 택시기사, 배 등 8차례 찔려 사망
’08.10.19	동구 대인동	60대 식당주인, 둔기로 머리 맞고 사망
’09.3.19	북구 중흥동	40대 회사원, 벽돌로 머리 폭행 당해 사망
◆전남		
’00.8.18	나주시 봉황면	20대 간호사, 만봉천서 알몸으로 숨친 채 발견
’04.8.3	영암군 미암면	50대 여성, 흉기로 찔려 사망
’05.5.13	순천시 외서면	50대 경비원, 머리 11차례 맞아 숨친 채 발견
’05.12.3	여수시 돌산읍	30대 중장비 운전기사, 흉기로 200여 차례 찔린 채 사망
’07.1.5	화순군 능주면	80대 노인, 벽돌 제조공장에서 손발 묶인 채 살해
’08.9.5	나주시 남평면	40대 여성, 지석강서 속옷만 입고 숨진 채 발견
’09.6.14	광양시 광양읍	40대 여성,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 목 졸려 사망
’10.10.15	목포시 용해동	20대 여대생, 귀가 중 성폭행 살해

밝혀야 할 광주·전남 미제사건들

임산부 살해·여대생 테이프 살해 등 2000년 이후 18건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은 모두 18건으로, 광주 10건·전남 8건이다.

광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2009년 3월 19일 북구 중흥동 H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40대 회사원 둔기 살해 사건과 2008년 10월19일 동구 대인동 H식당 주인 살해 사건, 2005년 5월15일 광산구 하산동 주유소 관리소장 살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시민 제보가 잇따르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또 서구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2001년 9월), 북구 용봉동 여대생 테이프 살해 사건(2001년 9월), 북구 오치동 40대 이용원 여주인 살해 사건(2001년 9월) 등도 전면 재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미제수사팀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광양 주차장 살인 사건’을 다시 미제 사건으로 포함했다.

이 사건은 2009년 6월14일 발생한 것으로, 광양시 중마동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박모(여·당시 42세)씨가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씨에게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낸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용의자의 법정 진술 번복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 살해방법 불일치 등으로 대법원은 무죄 판결했다.

수사팀은 당시 주요 용의자는 이미 무죄가 확정돼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또 다른 용의자 또는 공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순천시 외서면 50대 경비원 살해 사건(2005년 5월), 영암군 미암면 50대 여성 흉기 살해 사건(2004년 8월)에 대해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 사건(2010년 10월), 나주 지석강 40대 여성 속옷 변사체 사건(2008년 9월), 화순 80대 독거노인 살해 사건(2007년 1월), 나주 간호사 알몸 살해 사건(2000년 8월)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6일 오후 여수시 소호동에서 열린 ‘제9회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자들이 출발을 위해 바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날 대회에선 2명이 숨지고, 1명이 탈진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경 제공〉

사망사고 부른 여수 바다수영대회

참가자 2명 숨져…폭염·높은 수온 속 의사도 배치 안돼 안전관리 부실 지적

여수에서 지난 6일 열린 ‘제9회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자 2명이 대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사망한 사고의 원인으로 대회를 주최한 대한수영연맹 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폭염속에 바다에서 900여명의 동호인을 끌어 모아 대회를 열면서도 의사도 없이 구급차 한대에 의지하다 보니 초기 대응이 허술했고 변을 당한 동호인 2명 모두 의식을 잃고 전신 수영복 부력에 의해 바다에 떠있다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와 여수시수영연맹에 따르면 전날 여수 소호동 소호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진행된 수영대회에서 1㎞ 구간 참가자 강모(64·경남 사천)씨와 조모(여·44·전북 익산)씨가 대회 도중 의식을 잃고 바다에 떠있는 것을 안전요원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강씨의 경우 500m 왕복 구간 중 반환점을 돌아 600m지점에서 이날 낮 12시20분께 수면을 보며 엎드린 채로, 조씨는 도착지점을 150m가량 앞둔 지점에서 12시 40분께 하늘을 보며 떠있는 채 발견됐다.

이들은 구조선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뭍으로 옮겨졌지만, 조씨의 경우 먼저 사고를 당한 강씨가 한대 뿐이던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후송이 20분가량 지연됐다. 대회장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은 점, 심장제세동기가 단 한대 밖에 없었다는 점도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 참가자 대비 안전요원 규모, 안전요원들의 인명구조자격 보유 여부도 논란거리다. 500m구간(왕복 1㎞)에 해경 소속 해양안전교육원 관계자 12명과 수영연맹소속 관계자 등 안전요원 46명이 투입됐지만 변을 당한 동호인 모두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이 이날 정오부터 3개 그룹 300여명을 20~30분 단위로 나누어 출발시키려다가 출발 시점을 좁힌 것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계획과 달리 첫 그룹은 12시5분께, 2번째 그룹은 12시10분께, 여자팀인 3번째 그룹은 12시 25분께 출발시켜 300여명이 일제히 몰리면서 이상 징후를 띠는 참가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폭염과 높은 수온(당시 금오도 수온 26.2도), 체력 소모가 뚜렷한 바다수영의 특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대회에 참가했더라도 의료진과 구급차 배치 및 참가자 대비 안전요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주최 측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여수수영연맹 관계자는 “수영대회 안전관리 규정은 따로 없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염두에 두고 충실하게 대회를 준비했으나 사고로 연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경은 주최 측인 수영연맹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주최측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화순 물놀이장 6세아 의식불명
섬진강 실종 10대 숨진채 발견

지난 6일 오후 3시께 화순군 도곡면의 한 실내 물놀이장에서 A(6)군이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다른 이용객이 발견했다. A군은 안전요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다.

앞서 6일 오전에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광양시 태인동 섬진강 하류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실종됐던 송모(17)군이 사고지점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광양=김경원기자 kkw@

부하직원 폭언·업주 접촉
영암경찰서 과장 해임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 업주와 수시로 접촉한 영암경찰서 과장이 해임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영암경찰서 A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봄 해당 경찰서에 발령받은 이후 부하 직원들에게 회의시간 등에 ‘말을 안 들으면 내쫓아버리겠다’, ‘이따위로 할거면 출근도 하지마라’며 수십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경감이 단속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 시 소속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한 주점의 실제 유흥업소 업주와 몇 차례 식사를 하고 몇 달 전 제주도 여행까지 함께 한 점도 징계사유로 들었다.

A경감은 그러나 “징계위 결정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찜통 통학버스 아이 방치
인솔교사·기사 영장 기각

폭염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가까이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이태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광주시 광산구 S유치원 인솔교사 정모(여·28)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S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예인 되려면 성로비도 해야”

쌍나팔

○…연예인 지망 연습생에게 “멘탈이 약하다. 성 로비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옷 벗기를 강요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쇠고랑 신세.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에 따르면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는 지난 4월 소속 연습생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간 강요해 옷을 벗게 한 혐의.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A양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 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동석했던 같은 기획사 소속 여가수 신모(27)씨도 먼저 옷을 벗고 A양이 옷을 벗는 것을 거든 혐의가 탄로나 강요 방조 혐의로 입건.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3452	1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7 화순3차서라아파트 303동 1층 106호 54.825㎡	아파트	72,000,000 72,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1463	1	북구 두암동 924-4 265.8㎡ 북구 삼정소로길 93 1층105.03㎡ 2층49.50㎡ 지하실9.90㎡ 제시외건물 등 22.5㎡	대 단독주택	281,098,920 281,098,9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2016타경 61151	1	북구 호동로63번길 47-4 1층75.93㎡ 2층56.30㎡ 부속건물 변소0.81㎡ 제시외 보일러실 등 31.7㎡	단독주택	130,659,860 130,659,8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북구 용봉동 155-33 137.5㎡	대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3919	1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산131 32695㎡	임야	30,079,400 30,079,400	
2016타경 4646	1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411 430㎡	전	3,870,000 3,8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565-1 635㎡	전	8,890,000 8,8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4011	1	동구 중앙로358, 상가동 2층 215호 [계림동,금호계림주상복합] 15.55㎡	근린시설	28,000,000 28,000,000	
2016타경 4127	1	동구 학동 676-22 149㎡ 동구 의재로35번길 13-1 81.6㎡	대 근린시설	115,505,400 115,505,400	일괄매각
[자동차,중기]					
2016타경 5113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지로길33[지죽동] 등록번호:59수2740 차명:아반떼 연식:2015	자동차	15,000,000 15,000,000	보관: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6타경 5687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금재로 47 [북동,JK빌딩5층] 등록번호:89저9372 차명:봉고III냉동차 연식:2013	자동차	13,000,000 13,000,000	보관:광주광산구도천동143-13㈜수완컨테이너하우스
[기타]					
2016타경 4523	1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22-8 71㎡[공유자선막동지분1/2전부]	도로	11,396,000 11,396,00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동소 125-4 77㎡[목록1과지분동일]	도로		
2016타경 61496	1	나주시 운곡동 244-5 가동호 공장282.5㎡ 사무실169.5㎡ 제시외 저온창고 등 57.6㎡	기타	608,188,000 608,188,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244-5 나동호 452㎡	공장		
		동소 244-5 다동호 1,2층각452㎡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8. 23.[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8. 30.[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형남곤